

학부모 속여 빼돌린 돈 23억 피해자는 모른다는데...

광주·전남 비리 어린이집 세부 내역 공개 안돼 소액 집단소송 등 가능하게 구제방안 마련해야

경찰이 학부모들을 속여 잇속을 챙겨온 광주·전남 어린이집 원장들을 무더기 적발한 뒤 გადა 지급한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정작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불가능해 학부모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3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거나 학부모들에게 გად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로 적발한 광주·전남 어린이집은 모두 71개소, 횡령 액수만 34억여원에 달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어린이집 중 61개 어린이집에 대해 교재·교구비, 원생 가방, 활동복 구입, 앨범 제작비,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 받아낸 혐의를 적용했다.

전체 횡령 금액 중 이같은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빼돌린 돈만 23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학부모들은 '뽕'이었고 어린이들은 '돈'으로 보였다는 말까지 나온 이유다.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적발된

어린이집을 알 수 없는 탓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국고 보조금과 달리, 개인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적발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손해를 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일부에서 소액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경찰에 적발된 북구 B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500명 가량의 학부모들에게 교재구입 대금을 부풀려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들 학부모들은 피해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7살 된 자녀를 둔 엄마 A(36)씨도 최근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교재비·방과후 수업비를 어린이집에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경찰 수사로 알게 됐지만

“어대껏 გადა 지급한 교재값, 특별활동비가 얼마인 지,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한 지 알 수 없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어린이집의 학원생 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 학부모가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확정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면 서로 해당 어린이집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만, 자치단체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할 때 피해를 본 학부모들의 구제 방안도 함께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 사건 보고 놀랐나?

여수시, 어촌 앞 바지락 채취권 갈등 주민 ‘분신 소동’ 벌이자 부랴부랴 허가 내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어촌마을 앞 바지락 채취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여수 지역 한 주민이 시청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였다. 민원허가와 관련 순천시청사의 40대 분신 사망 사건에 이어 터져 나온 소동이라 여수시는 즉각 관련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24일 오후 3시께 여수시청 앞에서 정모(53·여수시 돌산읍)씨가 분신하겠다고 차량에 휘발유 20L 등이 플라 스틱 통을 싣고 도착했다. 정씨는 이 미 언론사 등에 “여수시가 주민들에게 바지락 채취 허가서를 내주지 않고 있어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3시 여수시청에서 분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여수시청 직원 10여명은 소방차, 소화기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정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휘발유통을 빼앗으며 정씨를 제압했다. 정씨는 여수시 남면 월간도 어촌계 주민들이 지난 8월 전남도에 신청한

추가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여수시가 내주지 않다 보니 잠수기(수중작업) 수협의 작업이 수개월째 계속됐고 이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돼 항의하기 위해 분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어민은 지난 3월부터 마을 앞 갯벌에 바지락을 양식해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에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해 지난 10월 인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그러나 작업 우선권을 갖고 있는 잠수기 수협의 민원 제기로 바지락 양식장 허가를 최종 승인하지 않은 채 수개월째 협의를 진행해왔다. 같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던 돌산을 작금·신복·신시 어촌계 주민들의 바지락 양식장 허가권은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허가한 바 있다.

분신 소동 직후, 여수시는 그동안 월간도 어촌계 주민들이 요구한 18ha를 10ha로 줄여 양식장 허가를 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노래방 술판매 규제 완화된다

영업정지→과징금

술을 판매한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약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도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집행행위를 받은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연필뉴스



“철도민영화 저지” 7보1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4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길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승리,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며 7보1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노총 “경찰이 여성 조합원 성추행”... 경찰 “사실무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시의회는 24일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을 항의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여성 참가자를 성추행했다”며 책임자 문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사 회의 방문 중 경찰이 여성 집회참가자를 성추행했다”며 “경찰은 상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열 안쪽으로 도망간 가해자

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대표 6명은 기자회견 직후 박석일 북부경찰서장을 만나 공식 사과와 성추행 가해자를 찾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현재 피해자가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집회 과정을 녹화한 영상 관측결과, 성추행 장면이 담긴 화면은 발견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집회 전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성추행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중형기자 gilee@kwangju.co.kr

영암서 접촉사고...나주까지 달리다 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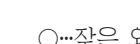
운전자 등 3명 사상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이 멈추지 않고 2km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 2명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1차 접촉 사고 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멈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오전 10시10분께 나주시 반남면 석천리 앞 도로에서 임모(71)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임씨와 동승자 이모(여·60)씨 등 2명이 숨지고 임씨 아내(72)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임씨는 사고 10분 전인 이날 오전 10시께 영암군 신복면 월평리 신복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지나다 조모(49)씨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임씨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 부딪혔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임씨 아내 이씨는 “접촉사고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나 계속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진출 등을 토대로 차량 제동장치 결함 여부 및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연애병사 논란’ 가수 비 무혐의 처분엔 누리꾼들 ‘울거울부’



“...왔은 외출과 휴가로 ‘연애병사 논란’을 촉발시켰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사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23일 비의 소속사 큐비BC에 따르면 비가 군 복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도 ‘비호감이다’, ‘인정하면 국방부가 욕을 먹는 일이니 비란 타하지 말자’ 등의 의견이 나뉘며 울거울부. /연필뉴스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1월 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사시절,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족)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별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재적처리함.)
② 본인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은 추후 통지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hello tv

사은대축제

hello 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형 제안

<p>디지털tv</p> <p>국내 최고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p> <p>월 8,000원</p> <p>(VAT 포함 8,800원)</p>	<p>인터넷</p> <p>국내 최고 기가넷 스피드 초고속 인터넷 방송</p> <p>월 10,500원</p> <p>(VAT 포함 11,550원)</p>	<p>전화</p> <p>품질은 그대로, 요금은 절반! 양방향 양방향</p> <p>월 2,000원</p> <p>(VAT 포함 2,200원)</p>
---	--	---

2. hello tv 미니팩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격
골프(스포츠)	골프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크팩	NEWS ADVENTURE, Discovery	-3,000원 2,000원(원가) (VAT 포함 2,0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O	-3,000원 2,000원(원가) (VAT 포함 2,000원)
카드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카드팩	KBS 3kids, Disney Junior	-3,000원 2,000원(원가) (VAT 포함 2,0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te	-3,000원 2,000원(원가) (VAT 포함 2,000원)

가입문의 **1855-1008** www.cjhellotelevision.com